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9호 【루계 제2347호】

주체104(2015)년 9월 12일 토요일 음력 7월 30일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대표단을 환영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7일 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제1부위원장인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 내각제1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 성원들과 상봉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과 꾸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을 맞는 시기에 진행되고있는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에게 자신의 인사를 전해줄것을 부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의 친근한 벗이고 동지이며 혁명전우인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가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한달 앞둔 시기에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우리 나라에 보내준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새세대들에게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의 력사와 전통을 깊이 새겨주고 두 나라사이의 형제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조선과 꾸바친선의 불패의 생활력이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석상에서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내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리였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는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7일 조선과 꾸바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터져오르고 장내는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대를 이어 길이 빛내이시며 조선과 꾸바사이의 친선의 새 력사를 펼쳐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열기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와 미겔 마리오 디아스 까넬 베르무데스동지에게 녀성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꾸바공화국 국가와 우리 나라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공훈국가합창단의 관현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관현악과 남성합창 《조선인민군가》, 관현악 《세계명곡묶음》, 남성5중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남성합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모란봉악단의 경음악 《단숨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꾸바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을 반영한 기악과 노래 《판따나메라》, 녀성중창 《까쁘리섬》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존경하는 피델 까스뜨로 루쓰동지, 라울 까스뜨로 루쓰동지와 상봉하시는 력사적화폭들이 무대배경에 정중히 모셔지자 장내는 뜨거운 격정에 휩싸였다.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속에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친선의 정은 대를 이어 변함없을것이라는것을 굳게 확신하게 해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이 손을 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극장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소합창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설화시와 남성독창 《금방석》, 재담 《청춘의 이름》, 하모니카와 혼성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 혼성2중창 《우등불》, 어은금독주와 방창 《젊음은 급행렬차》, 남성기타5병창 《우리 앞날 밝다》, 극이야기 《500만의 신념》, 남성4중창 《가리라 백두산으로》, 선동과 독연 《청년혁명학교》, 가무와 민족기악3중주 《우리 민족 제일일세》, 혼성중창이야기 《체육열풍좋다》, 선동극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혼성중창 《전선행렬차》, 녀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북과 노래 《해안포병의 노래》, 시이야기 《위대한 태양의 품》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최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소합창 《조선청년행진곡》,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로 끝났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터쳐올리는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오늘 진행한 공연은 우리 당의 70년력사는 청년중시의 력사, 불패의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라는것을 보여준 공연,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만점짜리 공연, 자신께서 청년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담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공연, 지금까지 본 예술선전대공연중에서 최고의 공연이라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는 우리 당의 마이크, 나팔수와 같다고 하시면서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분자들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작품,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청년들의 사상교양사업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들을 취급한 기름진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공연할데 대한 과업들과 청년중앙예술선전대를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청년중앙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맹렬히 벌림으로써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인민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공화국에서 모든 사업은 인민의 복리증진에 기본을 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으시고 국가의 정책을 세우도록 하시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보게 하도록 하신다.

최근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하는 멋쟁이공장, 중요한 공장들이 도처에 일떠서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고있으며 과일생산기지들, 남새생산기지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인민들의 보다 더 윤택한 식생활을 담보하고있다.

얼마전에는 평양시에 국수, 옥쌀, 과자, 빵, 단묵을 비롯한 강냉이가공품을 생산하는 강냉이가공공장이 현대적으로 꾸려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이 공장을 찾으시여 현대화가 실현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된 멋쟁이 공장,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중요한 공장이라고 평가해주시였다.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남먼저 찾아가시고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인민들에게 질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안겨주시려고 늘 마음쓰시는 그이께서는 공장을 하나 세워도 인민들의 식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장을 세우도록 하시고 농장을 하나 꾸려도 인민들에게 공급할 남새생산을 위한 농장부터 현대적으로 꾸리도록 하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해의 기슭에 세우도록 해주신 갈마식료공장이며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질좋은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주신 평양어린이식료공장, 세상에 없는 농장도시로, 남새생산기지로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대의 어느 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공장에서 생산되여나오는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을 보시며 얼마나 만족해하시였던가.

현대적인 식료가공기지들에서 생산되는 질좋은 제품을 보시면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관심하시는것은 공장의 제품이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가, 인민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가 하는것이다.

현대적인 공장을 세워도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못보거나 생산된 제품을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다는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인것이다.

인민들의 식생활에 이바지할 현대적인 공장들을 돌아보시며 못내 기뻐하시는 그이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며 사람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뜨겁게 체험하고있다.

언젠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물고기를 받아안고 기뻐하는 과학자들과 원아들의 사진을 보시며 정말 이런 멋에, 이렇게 순간에 속이 한번씩 뭉클해오는 행복에 도취되여보려고 힘들어도 웃으며 투쟁속에 사는것 같다고 하시며 보내주신 사랑의 친필글발은 지금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사회주의문명국에서 인민들이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향유하게 하시려고 그이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는것이다.

한겨울의 강추위도,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그이의 로고는 더더욱 커만 가고 그 심혈속에 평양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식료가공기지들이 현대적으로 꾸려져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있는것이다.

올해 한해만 놓고 보아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새해 벽두에 평양시버섯공장을 찾으신데 이어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 대동강자라공장과 인민군대안의 양어장들, 평양남새과학연구소, 평양대경김가공공장, 대동강과수종합농장 등 인민들의 식생활과 관련한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가지수를 늘이며 제품의 질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평양시버섯공장을 찾으시여 새해 벽두에 인민들을 위해 마련된 희한한 창조물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1년 365일이 이런 날들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은 그이의 제일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잘 알수 있게 한다.

지금 공화국에서는 세포지구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래동안 불모의 땅으로 버림받아오던 세포등판을 개간하여 인민의 행복한 웃음이 넘쳐흐르는 기쁨의 등판, 인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식생활을 보장해주는 황금의 들판으로 가꾸실 구상을 펼치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신다.

세포지구축산기지는 세포등판에 풀판조성만이 아닌 고기가공기지들과 우유제품생산기지들도 함께 꾸려지고있어 앞으로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전국 도처에 꾸려진 현대적인 온실농장들, 버섯공장들, 남새생산기지들, 청춘과원을 자랑하는 과일생산기지들과 여러가지 갖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식료가공기지들에서는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좋은 제품들이 꽝꽝 생산될것이며 앞으로 이 땅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훌륭한 공장들이 더 많이 일떠설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순

평양강냉이가공공장

평양시버섯공장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숭고한 인민사랑의 화폭을 펼치며

후대교육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공화국 창건을 앞둔 주체37(1948)년 9월초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과 함께 평양시내를 돌아보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승용차가 얼마간 달렸을 때 국립조선인민출판사인쇄소(당시)가 어느 건물인가고 물으시였다.

그가 인쇄소건물을 가리켜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인쇄소를 이윽토록 바라보시더니 좀 들렸다 가자고 하시면서 그쪽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인쇄소에 들리신 그이께서는 인쇄설비를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일부 서있는 설비는 어디가 고장인가, 인쇄소의 설비들을 만가동시키면 책을 한달에 얼마나 찍을수 있는가, 지금 주로 어떤것들을 인쇄하고있는가 등을 물으시며 인쇄소의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이윽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도서인쇄소로서는 국립조선인민출판사인쇄소가 제일 크지 않는가고 물으시였다.

현재로서는 그 인쇄소가 인쇄능력이 제일 크다는 일군의 대답을 들으시고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오신다음 그 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을 창건한다고 하니 아이들까지 기뻐서 어쩔줄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애들에게 교과서 하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고있다, 나는 이것이 가슴아프다, 우리의 새 세대들은 조국의 미래이다, 그들이 잘 자라야 민족의 앞날이 창창하고 조국이 부강발전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산에서 싸울 때 조건이 어려웠지만 학교를 꾸리고 아이들을 공부시켰다, 우리가 창건하는 공화국정권은 후대들을 위하여 최대의 관심을 돌리게 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 모든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하는 시책을 실시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해방된지 3년이나 되는데 아직 어린이들에게 새 교과서가 다 차례지게 해주지 못하고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였다.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창밖을 내다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교과서문제는 우리가 풀어야 할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까 가보니 국립조선인민출판사인쇄소가 일정한 생산능력을 가지고있는데 선전국(당시)에서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그 인쇄소를 내놓지 않겠는가고 물으시였다.

그 일군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쇄소를 교육국(당시)에 넘기겠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환히 웃으시면서 아주 잘 생각했다고, 선전국이 새 학년을 맞이한 어린이들에게 큰 턱을 낸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인쇄소를 잘 돌려 모자라는 교과서들을 빨리 찍어내게 하자고,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이제는 마음이 놓인다고, 우리가 오래동안 희생을 무릅쓰고 산에서 싸운것도 다 우리 어린이들의 앞날을 위해서였다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교과서를 전문으로 발행하는 교육도서인쇄공장이 생겨나게 되였고 그때로부터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였다.

본사기자

애국공장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안겨주시며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바라는 인민들의 리상과 꿈이 날을 따라 현실로 이루어지고있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보살핌속에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공업기지들에서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경공업공장들을 찾으실 때마다 생산이 정상화되는가, 제품들에 대한 인민들의 평은 어떤가부터 먼저 알아보시고 인민들의 기호와 사용에 편리한 호평받는 상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기상품들을 꽝꽝 생산하도록 과업과 방도도 가르쳐주시며 생산자들을 고무격려하신다.

그이의 세심한 보살피심은 평양에 있는 락랑위생용품공장에도 깃들어있다.

락랑위생용품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에 따라 2012년 4월에 조업한 현대적인 위생용품생산기지이다.

위생용품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호품 못지 않게 필수적이고 수요높은 생활용품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질좋은 위생용품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생산기지를 새로 건설하도록 하시였고 위생용품견본도 보내주시였다.

이렇게 건설된 락랑위생용품공장에서는 지금까지 질좋은 많은 위생용품들이 생산되여 구매자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 7월 위생용품에 대한 날로 늘어나는 인민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제품의 생산과 포장, 설비들의 가동실태 등을 주의깊게 돌아보시면서 위생용품들의 질이 높다고, 이 공장 제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이 좋다는데 정말 기쁘다고 치하의 말씀을 주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가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는 문제로부터 원료, 자재보장 문제, 제품의 질보장에서 편파성을 없애고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하며 제품포장을 자동화하는 문제, 상표도안에 이르기까지 생산에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위생용품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영이 좋을수록 그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수요에 맞게 위생용품의 가지수를 늘이는 문제, 애기기저귀와 1회용물소독종이와 같은 위생용품도 생산하도록 할데 대해 이르시였다.

그날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위생용품을 안겨주시기 위하여 마음써오시였다고 하시면서 락랑위생용품공장은 장군님께서 그처럼 심려하시던 문제를 덜어드리는 공장, 자신께 큰 도움을 주고있는 애국공장이라고 하시였다.

인민생활에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시면 위생용품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 애국공장이라는 값높은 평가를 주시였겠는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새기며 이 공장의 종업원들은 인민생활에 보탬을 줄 질좋은 위생용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산의 동음을 더욱 높여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세월이야 가보라지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 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

흥겨운 노래선률이 흘러나오는 곳은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새로 일떠선 조선식 기와집이였다.

독특한 민족적정취를 풍기는 아담한 2층짜리의 이 건물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단 5개월만에 완공된 평양양로원이다.

어제는 부모없는 아이들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며 떠들썩하던 여기에 오늘은 의탁할 곳이 없는 늙은이들이 제손으로 준공의 테프를 끊고 삶의 보금자리를 잡았다.

어린이들과 로인들을 가장 아끼고 우대하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는것은 공화국의 일관한 국가적정책이다.

공화국에서는 해방직후인 주체35(1946)년 1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결정으로 평안남도 강동군 만달면 응암리(당시)에 첫 양로원을 개설하였다.

당시 새 조국건설을 위해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도 많았으나 사람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특히 년로자들의 생활을 돌보아주는것을 한시도 미룰수 없는 중요한 사업으로 여기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양로원을 먼저 개설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주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시책을 그대로 이으시여 년로자들을 위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 어린이들에게 근심걱정없이 생활할수 있는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주어야 한다고 하신 장군님께서는 양로원과 양생원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개선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새로 건설한 양로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평양양로원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명당자리에 평양육아원, 애육원과 함께 평양양로원까지 일떠섬으로써 이 지구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이 집대성된 곳으로 전변되였다고 하시였다.

지난 3월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으시여 양로원이 년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건설되도록 세부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지도를 주신 원수님.

평양양로원을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훌륭한 양로원으로 꾸려야 한다고, 민족의 향기가 짙게 풍기는 민족건축물의 본보기가 되게 꾸려야 한다시며 양로원건설과 관련한 수많은 가르치심을 주신 원수님.

참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완공된 평양양로원은 보양생들을 위한 온갖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훌륭한 양로원이다.

양로원에는 오락실과 운동실, 침대와 온돌바닥으로 된 침실, 식사실, 치료실, 휴식터는 물론 영화관과 리발실, 미용실에 수경온실까지 꾸려져 로인들이 적적함을 모르고 여생을 즐겁게 보낼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보양생들의 기쁨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모르고있다.

본사기자 리경월

국가의 년로자보호정책이 더 잘 구현되도록 하겠다

로당익장이란 늙을수록 기력이 더욱 왕성해진다는 말이다.

지금 당의 사랑과 배려속에 세상에 부럼없는 로후를 보내고있는 우리 양로원의 보양생들을 볼 때면 이 말이 자주 생각나군 한다.

정말이지 우리 양로원의 모든 보양생들은 로당익장의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삶을 향유하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 젊어지게 하고 행복의 웃음이 언제나 그들의 얼굴에서 떠날줄 모르는 오늘의 경이적인 현실은 언제나 인민을 위한 시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꽃피운것이다.

이번에 평양양로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신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많은 국가적인 중대사들을 해결하셔야 하는 그토록 분망하신 속에서도 부모없는 아이들을 위해 온 나라 도처에 현대적인 육아원, 애육원들을 새로 번듯하게 일떠세우도록 해주신 원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돌려야 할 년로자들을 위해 이렇듯 세상에 둘도 없는 멋쟁이양로원을 세워주도록 하신것이다.

훌륭히 완공된 평양양로원을 돌아보시며 우리는 년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년로자보호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이의 존귀하신 영상을 뵈오면서 나는 우리 원수님이시야말로 온 나라 대가정의 친어버이이시라는것을 페부로 절감할수 있었다. 그리고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화국의 혼연일체의 밑뿌리, 우리 인민들의 아름답고 순결한 정신세계의 밑뿌리는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에 있다는것을 더 잘 알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슬하에서 자신보다 동지들을 먼저 생각하는것을 체질화한 인민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덕정치를 받들어 사랑과 믿음만을 알며 사는 인민이기에 오늘 우리 양로원으로는 전국각지에서 찾아오는 자원봉사, 지원봉사대렬이 끊기지 않고있다. 어제는 김만유병원과 제2예방원, 제3예방원, 류경구강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우리 보양생들을 찾아와 건강검진과 치료대책을 세워주더니 오늘은 또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시농촌경영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에서 수경온실에서의 남새재배에 필요한 각종 시약들과 농약,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우리 양로원에 찾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버이와도 같은 다심한 보살피심과 온 나라의 관심속에 고목에도 꽃을 피우며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우리 보양생들이다.

얼마전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건강장수에 유익한 갖가지 식료품들을 우리 양로원의 보양생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시였다.

그때 보양생들은 년로자들을 위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평범한 자기들을 혁명선배, 웃사람으로 내세워주며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기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는 나라의 은덕이 너무 고마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 양로원의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면 양로원의 관리운영과 보양생들의 생활보장사업을 짜고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그들에게 가닿도록 하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다.

우리는 모든 보양생들을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한 혁명선배, 웃사람으로 존대하며 잘 돌보아주겠다. 하여 사회적으로 돌보아주어야 할 대상들을 적극 보살펴주는 미풍이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하며 이 좋은 세월에 보양생들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여생을 보람있고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겠다.

평양양로원 원장
최정심

◎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것 (6) ◎

문명의 향유자는 근로하는 인민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은 누구나 바라는 지향이고 념원이다. 현대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문명해지고 유족해지고있다.

하다면 오늘날 누구나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리고있는것인가. 현대문명을 요란스럽게 광고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문명은 몇 안되는 특권층의것이지만 공화국에서 문명의 향유자는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다.

공화국의 사회주의는 전체 인민을 문명한 생활의 향유자로 내세워주는 가장 인민적인 제도이다.

최근 공화국에서 펼쳐지고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인민들의 생활에 정서와 활력을 더해주는 통일거리운동쎈터, 몰라보게 전변된 만경대유희장과 대성산유희장,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옥류아동병원과 류경구강병원,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공화국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하는,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모든것을 더 좋고 더 훌륭하게 마련하여 인민들에게 통채로 안겨주고있다.

문수물놀이장 하나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수십개의 수조들이 야외와 실내에 꽉 들어차있는 환상의 세계, 아기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모성의 행복감에 싸여있는 녀성들, 폭포마냥 날아떨어지는 덕수를 맞는 로인들, 승벽내기로 물장구를 치는 유쾌한 처녀들, 순간에 우주에서 날아내리는듯 한쾌감을 느끼며 물미끄럼대를 내리는 청년들, 끝없이 웃음발을 터치는 사람들…

세계의 그 어느 명화가도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그려내지 못할것이다.

근로하는 인민을 사회주의문명의 향유자로 내세워주신분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인민사랑의 천품을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다.

문수물놀이장형성안만해도 113차례나 지도하여주시고 건설장을 낮에도 찾으시고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찾으시며 수조의 타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떠나 인민들의 즐겁고 행복한 기쁨의 웃음소리가 사시장철 물놀이장에 차넘치는 오늘의 꿈같은 현실을 생각할수 없다.

조국땅 방방곡곡에 일떠선 수많은 문화휴식터들에서 평범한 근로인민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있다.

세계일류급의 물놀이장에서 황홀함에 경탄을 터치던 근로인민이 말고삐를 잡고 멋진 승마주로에 나서고있고 마식령의 희한한 스키장에서 겨울의 재미를 맛보고있다.

릉라곱등어관에서는 망망대해의 곱등어가 재주를 부리며 도시의 한복판에서 인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주고있다. 하기에 릉라곱등어관을 찾았던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곱등어공연을 돈많은 부자들이나 볼수 있다. 조선에서는 근로하는 평범한 인민들이 이런 문명의 향유자로 되고있으니 정말 놀랍다. 세상에 이런 나라는 오직 조선밖에 없다.》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울려나오는 기쁨의 웃음소리는 사회주의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다.

공화국에서 인민대중이 누리는 문명은 끝없는 창조속에서 이루어지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이 누리는 문명은 이 세상 그 어떤 억만장자도 맛볼수 없는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것이다.

《문명세계의 본보기》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하는 미국의 대도시들에는 곳곳마다 화려한 네온등이 번쩍거리고 상점과 식당, 극장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어도 돈없고 권세없는 사람들을 반겨맞아주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그마한 세방조차 마련할수 없어 한지에서 새우잠을 잘 때 유흥장들과 호화별장들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부유한자들이 하루밤 먹고 노는데만 해도 거액의 돈을 탕진하고있다.

문명의 창조자는 누구이며 향유자는 누구인가.

창조와 향유는 사회적인간의 지극히 마땅한 권리이다. 창조와 향유의 분리, 바로 여기에 날로 심각해지는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이 있다.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난 반월가시위가 미국전역은 물론 자본주의세계전반으로 급속히 번져져 독점재벌들을 전률하게 한 사실은 부패한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진정 근로하는 인민이 문명의 창조자, 향유자가 되여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해나가고있는 모습이야말로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가질수도 없는 조선의 귀중한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화를 복으로 전환시킨 북남합의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념원에 부응하여

지난 7일과 8일 판문점에서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진행되고 합의서가 채택된것을 계기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관심은 더욱 높아가고있다.

모처럼 북남관계개선의 기회가 마련된 때에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여 북남관계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되기를 온 민족은 념원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8년기간 북남관계는 파국으로만 치달아왔다.

대화다운 대화한번 변변히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6.15시대의 소중한 열매들이 《5.24조치》를 비롯한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의 희생물이 되여 참혹하게 짓밟히고 조선반도에는 전쟁위험이 더욱 증대되고있다.

실지 체험을 통하여 관계개선의 절박성을 온넋으로 새겨안은 우리 겨레이기에 북과 남이 더는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길을 활짝 열어나갈것을 바라고있는것이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할것이 아니라 고위급긴급접촉합의를 성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

민족의 이 념원과 요구에 부응하여 불신과 대결로 얼룩져온 북남관계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는것은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이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속도조절》이니, 《지나친 락관론 경계》니 하며 대세의 흐름에 역행해나서고있다.

북남적십자실무접촉에서 합의서가 채택된것을 두고서도 남조선당국은 《북의 진정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느니, 《북이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니 하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기울이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을 우롱하는 신중치 못한 발언을 계속 늘어놓고있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북과 남이 더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야 한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다나니 북남간에 좋은 합의서가 채택되여도 의심부터 앞세우면서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에 훼방을 놓고있는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언제 가도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가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비난하며 북남관계개선에서의 《통 큰 결단》을 촉구하고있겠는가.

나라의 통일을 위하고 민족의 평화를 위하는 일은 앞당길수록 좋다.

더우기 반통일대결분자들에 의해 잃어버린 귀중한 시간을 회복하자고 해도 그렇고 현 북남관계상황을 놓고보아도 최대로 모든것을 앞당겨야 한다.

력사적인 6.15시대에 우리 겨레는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도 정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촉진시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다.

지금이야말로 온 겨레가 그때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북남관계에서의 획기적인 전변을 마련하기 위해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벌려야 할 때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손잡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에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신들이 태를 묻고 자라난 이 땅을 두고 백두산천지에 동이 트면 한나산 백록담이 운무속에 자태를 드러내고 랑림의 산정에 바람이 일면 태백의 밀림이 설레이는 삼천리강토라 일컬어왔다.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속에서도 단군민족의 혈통을 꿋꿋이 지켜오며 민족의 슬기와 기상을 온 세계에 과시해온 우리 겨레가 70년간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불신과 대결을 거듭하여온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이다.

특히 지난 8월 조선반도에 조성되였던 첨예한 정치군사적긴장상태는 민족분렬의 아픔을 더욱 통절하게 느끼게 하였으며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절박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였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하여 마련한 공동보도문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이 더이상 불신과 대결의 어두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민족의 장래부터 생각하고 멀리 앞을 내다보면서 관계개선과 통일의 길로 손잡고나가야 한다.

민족분렬의 비극을 가시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것은 공화국의 시종일관한 원칙적립장이다.

공화국은 지난 시기 북남관계가 파국의 국면에 빠져들었을 때에도 온 겨레가 지지찬동한 북남공동선언들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았다.

조국해방 70돐과 함께 민족분렬의 70년이 되는 올해에도 공화국은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함께 손잡고나갈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그처럼 정세가 첨예한 속에서도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을 내놓고 할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이번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긴급접촉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숭고한 리념의 승리인것이다.

래일의 결과는 오늘의 노력에 의하여 결정되듯이 민족의 장래는 오늘날 우리 세대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나온 력사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시, 대결에만 매달린다면 신뢰와 화합이 언제 가도 이루어질수 없고 전쟁위험만 증대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더이상 불신과 대결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민족의 장래운명과 통일을 생각하며 민족적리익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것을 바라고있다.

진정으로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북과 남이 화해와 협력을 통한 관계개선을 못할 리유가 없는것이다.

북과 남은 낡은 시대의 유물을 깨끗이 청산하고 북남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대담하게 전환시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길에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박태섭

북남적십자 실무접촉 진행

북남적십자실무접촉이 7일과 8일 판문점에서 있었다.

접촉에서 쌍방은 추석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합의서에 의하면 북과 남은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안에 북남적십자회담을 열고 호상관심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게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성의있는 노력 (2)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이 합의되기까지

지난 세기 70년대에 들어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운동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주체60(1971)년 4월 12일부터 14일사이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시킬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8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담은 호소문을 발표한것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60(1971)년 8월 6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한 외국수반의 평양방문을 환영하는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당시 남조선의 집권당이였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인사들과 아무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그것은 북남대화의 문을 열어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획기적이고도 공명정대한 제안이였다.

하기에 남조선의 출판물들도 《우리의 운명이 외국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며 당국의 《통일정책의 재검토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자주통일을 주장하였다.

북남협상에 대한 내외의 지지여론이 날로 높아가자 《선건설, 후통일》, 《승공통일》론을 내들고 통일에 대한 론의와 북남간의 그 어떤 접촉도 완강하게 거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은 적십자회담의 형식으로 북남대화에 응해나오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공화국정부는 적십자회담을 성사시키는것과 함께 대화의 격을 높여 정치회담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이에 따라 주체60(1971)년 8월 20일부터 진행된 북남적십자단체 파견원들의 다섯차례에 걸친 접촉에 이어 9월 20일부터는 쌍방적십자단체들사이의 예비회담이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북남은 고위급정치회담을 여는데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마침내 북과 남은 주체61(1972)년 5월초부터 6월초사이에 평양과 서울에서 분렬사상 처음으로 되는 고위급정치회담을 진행하게 되였다.

주체61(1972)년 5월초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평양에 온 남측대표를 친히 만나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민족분렬을 지속시킨다면 우리 민족은 두개의 민족으로 영원히 갈라질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허용할수 없으며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해서는 북남쌍방이 합의하여 세운 근본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찍부터 구상하여오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들을 한조항한조항 설명하시였다.

위대한 주석의 불타는 통일애국의 뜻과 열정앞에서는 비록 《반공》을 부르짖으며 민족분렬을 고취해오던 사람일지라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남측대표는 거듭 자리에서 일어나 주석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3대원칙에 전적으로 찬동한다고, 자기측의 최고당국자도 이에 찬성할것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로부터 얼마후인 주체61(1972)년 7월 4일 평양과 서울에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이 공식 발표되게 되였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7.4공동성명의 발표는 북과 남이 분렬사상 처음으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합의한 특기할 사변, 분렬과 대결의 동토대를 화해와 단합의 열풍으로 녹여낸 민족사의 첫 쾌거였다. 수십년동안 격폐되였던 북남관계에서는 귀중한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7.4공동성명의 발표로 하여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이 공동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할수 있게 하는 강령, 북과 남이 대화와 협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지도적원칙이 마련되게 되였다.

하기에 북,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사는 곳마다에서는 《민족의 앞길에 대통운이 텄다.》, 《통일을 눈앞에 보는것만 같다.》는 목소리들이 연방 울려나왔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세계인민들도 조국통일3대원칙을 두고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통일제안》,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수 있는 애국애족의 방안》이라고 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제반 사실들은 1970년대초에 북남대화가 시작되고 북과 남이 처음으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에 합의한 특기할 사변이 이루어진것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의 산물이라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현은경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소식에 접한 남조선인민들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가자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자면

지금 온 겨레는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해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 성과를 북남사이의 관계개선과 민족의 통일에로 지향시켜나갈것을 바라고있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모면한데 그치지 말고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와 어긋나는 불순한 말, 도발적인 움직임은 북남관계개선에 장애만 조성하게 될것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자면 서로의 사상과 제도,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나라의 분렬로 하여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반세기이상이나 존재하여오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방이 타방에게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대결과 충돌을 피할수 없으며 언제 가도 화합과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당국은 앞에서는 대화를 운운하고 돌아앉아서는 그 무슨 《도발》타령을 계속 외워대면서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의식을 주입시키려고 발악적으로 날뛰는가 하면 삐라살포니, 《북인권법》채택이니 하는 극악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집권자는 그 무슨 《2015 서울안보대화》개막식 《기조연설》이라는데서 《통일이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것》이라느니, 《북이 실현불가능한 핵개발과 경제발전병진로선에서 벗어나 개방과 개혁을 통해 진정한 발전의 길로 나와야 할것》이라느니 하고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무엄하게 걸고들었다. 이것은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의 판을 깨고 북남관계를 또다시 위험천만한 대결관계에로 몰아갈수 있는 용납못할 도발행위이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자극적인 언동이 북남관계에서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초래하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기에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할데 대해 한두번만 강조하지 않았다.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가자면 남조선당국이 대화상대가 갖추어야 할 체모부터 갖추는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려는 관점과 북남당국이 합의한 공동선언을 인정하고 리행하려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지 말고 동족대결정책을 버려야 하며 정세를 긴장시키는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 모처럼 마련한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북남관계개선과 민족통일에로 지향시켜나가야 할것이다.

강현철

외세가 아니라 민족의 힘을 믿어야 한다

지난 8월 하순에 진행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결과로 북과 남사이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해소되고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였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위기상황에서 북과 남이 서로 마주앉아 머리를 맞대고 사태의 엄중성에 대해 공감하고 진지하게 협의한 결과에 이룩된 성과이다. 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하여 북과 남은 공동의 과제에 합의를 이룩함으로써 북남관계에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획기적국면을 열어놓았다.

북과 남이 예측할수 없는 충돌로 치닫던 험악한 사태를 막고 화해의 손을 잡은데 대해 내외가 한결같이 환영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듯이 북남관계개선을 추동하고 조선반도평화를 지키는 힘은 그 어떤 외부세력에 있는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조선의 불순세력들이 《북의 도발사태》니, 그 누구의 《건설적역할에 감사를 드린다.》느니, 지어 《통일외교》니 뭐니하고 떠든것은 현실을 외곡하고 어렵게 마련된 북남합의리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북남관계와 통일문제는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풀어나가야 할 민족내부문제이고 민족자신의 문제이다. 여기에 외세가 끼여들게 하는것은 오히려 복잡성만 조성하고 북과 남의 불신과 대결을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한다.

동서고금의 력사는 외세가 다른 나라의 내부문제에 개입하여 그를 옳게 해결해준 실례를 알지 못한다. 오히려 외세가 개입한 곳에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 참혹히 유린당하고 동족분쟁이 발생하며 류혈참극이 초래되는것과 같은 피의 악순환이 빚어졌다.

내외가 일치하게 평하고 있는것처럼 공화국은 이번에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온 겨레의 념원을 반영하여 철저한 자주적립장에서 주동적으로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제기하고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 조선반도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를 풀어나가는데서 그 누구에게 기대를 거는것처럼 어리석고 백해무익한 일은 없다.

만일 그 누구든지 민족내부문제를 밖에 들고다니며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할수밖에 없게 될것이다.

지금 북남관계는 어렵게 마련된 북남합의가 실속있게 리행되여 관계개선의 길이 열리는가, 아니면 또다시 정세가 악화되여 극단으로 치닫는가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

북과 남은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통일의 열쇠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최근 남조선집권층속에서 《통일외교》라는 말이 자주 울려나오고있다.

해외행각에서의 그 무슨 《성과》니 뭐니 하며 늘어놓는 발언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동의》니, 《북압박카드로서의 주변국과의 통일론의》니 하는것들이다.

조국통일은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분렬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위업이다. 외세가 강요한 분렬을 외세에 의존하여, 외세의 도움으로 이룩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이다.

북과 남은 이미 오래전에 통일문제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첫 조항으로 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하고 7.4공동성명으로 발표한바 있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의 진수도 우리 민족끼리이다.

북남관계발전을 위한 지나온 력사는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모든것을 풀어나가면 북남관계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여나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 북남관계는 진통을 겪고 대결의 악순환만 되풀이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주변국들에 《통일공조》를 제안한다고 하고있으니 이 얼마나 얼토당토않는 궤변인가.

남조선당국은 외세와의 그 무슨 《통일공조》놀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평화통일의 의미에 대해 계속 설명해서 동의받는 노력》을 잘해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있다.

미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야망을 이루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격화시키고있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현실이 이러할진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오히려 미국의 북침전쟁소동의 돌격대가 되여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매일같이 벌려놓으면서 북남대결을 극대화하고있는것이 남조선당국이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외세와의 그 무슨 《통일공조》놀음이란 결국 반공화국핵공조로 우리에 대한 압살의 도수를 더욱 높이며 저들의 체제대결정책에 대한 지지를 구걸해보려는데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야당들과 각계층은 당국의 《통일외교》놀음을 《통일론의를 더 꼬이게 할수 있는 주장》, 《현실성이 결여되고 위험하기까지 한 접근법》 등으로 규탄배격하고있다.

지금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한 고위급긴급접촉합의사항들이 리행단계에 들어서고있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의 급속한 개선을 요구하고있는 때에 체제대결야망이 질게 배인 《통일외교》니, 《외교적고립전략》이니 하는것을 내들고 외세와의 공조에 열을 올리는것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족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남조선당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북남관계를 해치는 일에 매여달린다면 어렵게 마련된 북남합의가 깨여져나가고 또다시 대결과 긴장만이 이 땅에 흐르게 될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남조선당국은 이제라도 실현불가능한 《통일외교》놀음에 매달리지 말고 나라의 통일문제, 민족문제를 외세가 아니라 자주적립장에서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는 옳바른 자세와 관점을 가져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최명제

조국통일을 념원하는 남조선인민들

정세안정국면을 깨버리려는 위험한 군사적도발행위

북과 남이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체를 동란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험을 해소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극적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때로부터 여러 시일이 흘렀다. 이 기간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흩어진 가족 및 친척상봉을 마련하기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진행하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물도 내놓았다. 소중한 씨앗에서 걷어들인 첫 열매인것만큼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자면 그에 맞게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남조선에서 이에 역행하는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벌어져 민족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8일 남조선의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과 석적읍을 지나는 락동강에서 남조선호전세력은 2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여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동족을 반대하는 《락동강재연전투》놀음을 벌려놓았다. 한편 12일에 시작되는 《인천상륙작전기념행사》라는것을 15일까지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평화적분위기에 어울리지 않게 매캐한 전쟁화약내를 풍기며 호전적광기를 부리는것은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달가와하지 않는데로부터 모처럼 마련된 정세안정국면을 깨버리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행위가 아닐수 없다.

지난 8월 북과 남이 고위급긴급접촉을 통해 이룩해낸 합의문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나 끄기 위한것으로만 되여서는 큰 의미가 없다.

북과 남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서로의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담하게 관계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 그러자면 북과 남이 어렵게 마련하여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현 정세흐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상대방을 위협하고 자극하는 일체 행동들을 삼가해야 하는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일보직전까지 치달았던 지난 8월의 정세흐름을 보아도 그것의 발단원인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소동때문이였다.

군사적대결소동은 군사적충돌을 낳고 그것은 나아가 전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몰아넣을수 있다는것이 8월의 정세가 주는 교훈이다.

이것을 망각하고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여달리는것은 그들이 겨레가 바라는 조선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통일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그마한 불씨가 온 산판을 구워먹는다는 말이 있다.

북과 남의 첨예한 무력이 대치되여있는 조선반도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사소한 행동이나 우발적인 현상도 그것은 전면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다.

어렵게 찾아온 정세안정국면을 깨버리려는 군사적도발행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용납될수도 없다.

곽창호

북남관계파국을 불러오는《인권》모략소동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내외의 기대와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있는때에 남조선의 보수패당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지금 보수패당은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악랄하게 걸고들며 《국회》에서 《북인권법》이라는것을 시급히 채택해야 한다고 악청을 돋구고있다.

여기에 야당내의 일부 어중이떠중이들까지 합세하여 보수패당과 홍정판을 벌려놓고 그 무슨 《합의》를 이루어낸다며 열을 올리고있다.

한편 남조선당국은 유엔《북인권특별보고관》이라는자를 서울에 끌어들여 그 무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느니 뭐니 대결악담들을 불어대게 하면서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14일부터 열리는 유엔인권리사회 제30차회의와 때를 맞추어 남조선에서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북남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대결분위기를 지속시키려는 극악한 도발망동이다.

지금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한사코 채택해보려고 발광하는 《북인권법》으로 말하면 주제넘은 《인권침해조사》니, 삐라살포단체《자금지원》이니 하는 동족대결조항만 가득차있는것으로 하여 《발의》된 후 10여년동안이나 《국회》안에 처박혀있는 쓰레기법안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정식통과된다면 북남관계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이른바 《북인권》소동은 미국의 각본과 지휘밑에 진행되는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이다. 이런 불순하고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대결모략소동이 북남관계진전과 량립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하기에 남조선의 《국회》관계자들과 언론들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중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있다.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을 달가와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 각성을 가지고 특별한 주목을 돌릴것을 강조한것은 어렵게 화해와 완화의 길로 돌려세운 북남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 북남관계개선에서 획기적인 전변이 일어나기를 바라서이다.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기울이는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과는 너무도 상반되게 우리의 체제와 존엄을 비방중상하는 도발적악담을 계속 늘어놓는가 하면 《통일은 북핵문제와 인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것》이라고 떠들어대면서 극악한 반공화국《인권》소동으로 관계개선의 판을 완전히 깨버리려고 발광하고있다.

공화국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인권》을 걸고 벌어지는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것을 천명하였다.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악순환을 되풀이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북남관계파국을 불러오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더이상 매달리지 말아야 하며 북남대결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70년죄악을 폭로한다

남조선인권대책협회가 조사통보를 발표

미제침략군이 1945년 9월 8일 남조선에 군화발을 들여놓은 때로부터 7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7일 남조선인권대책협회는 미군이 지난 기간 남조선에서 감행한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만행을 폭로하는 조사통보를 발표하였다.

정치적자유와 권리에 대한 극악한 말살범죄

《해방자》, 《보호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침략군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그대로 연장한 파쑈적인 군정통치로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였다고 하면서 조사통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침략군은 공인된 국제법들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비법적으로 남조선을 강점하였을뿐아니라 일제의 식민지통치체계를 그대로 되살려 파쑈적인 군정통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일제식민지통치의 상징인 《조선총독부》를 군정청으로 고쳐부르고 기구체계를 거의나 원래대로 유지하였으며 1945년 12월 당시 3만 5 000여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을 그대로 두고 써먹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또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복무한 도지사, 군수, 면장도 그대로 두었으며 일제식민지법원을 륙군점령재판소로, 일제시기의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군정장관고문회로 간판만 바꾸어놓은데서도 잘 알수 있다.

미군정은 조작된 첫날부터 주인행세를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강요하였다.

그것은 1945년 10월 초대 미군정청 장관 아놀드가 《북위 38° 선 이남의 조선에는 오직 하나의 정부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정부는 맥아더장군의 포고령과 하지중장의 일반명령, 군정의 민정장관이 발표하는 명령에 따라 수립한다. …그것은 정치의 모든 면에서 지배와 권한을 독점하고있다.》고 폭언한데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당시 미국 종군기자였던 마크 게인은 자기의 수기에서 《우리들은 해방군이 아니였다. 우리들은 점령하기 위해, 조선사람이 항복조건에 복종하는가를 감시하기 위해 달려간것이다. 우리들은 상륙 첫날부터 조선인민의 적으로 행동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말살하기 위한 미군정의 범죄적정체는 인민위원회와 민주주의적정당 및 사회단체들과 조직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평화적집회, 시위를 야수적으로 탄압한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조사통보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1948년 미제는 리승만《정권》조작을 위한 《5.10단선》을 앞두고 특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남조선 전지역에 땅크와 대포, 기관총 등으로 중무장한 기동부대를 배치해놓았으며 하늘에는 전투기를, 주요항구들에는 함선들을 띄워놓고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당시 서울에 와있던 미국통신사 특파원은 이에 대하여 《분위기는 계엄령하의 도시와 같았다.》고 평하였다.

미제는 이처럼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해놓고 선거장에 강제로 주민들을 내몰았으며 선거참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마구 때리고 닥치는대로 잡아가두었을뿐아니라 대대적인 학살만행까지 저질렀다.

미군정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48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5만여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체포투옥되였으며 선거당일에는 500여명이 학살되고 850여명이 중상을 입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탄압만행은 제주도인민봉기에 대한 야만적인 진압에서 최절정에 이르렀다.

1948년 4월 3일 파쑈적인 미군정통치와 리승만친미주구의 망국적인 《5.10단선》을 반대하여 제주도인민들이 투쟁에 떨쳐나서자 당시 미군정청 장관은 《우리에게는 제주도땅이 필요하지 제주도민은 필요치 않다.》, 《섬에 휘발유를 퍼붓고 모두 죽여도 좋다.》는 극악무도한 살인명령을 내렸으며 결과 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7만여명이 무참히 학살되고 제주도는 피의 섬으로 화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내 대조선문제전문가로 알려진 시카고종합대학 교수 브루스 커밍스는 1998년 3월 일본 도꾜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제주섬에서 발생한 모든 학살극과 잔혹행위에 대해 미국은 단지 륜리적책임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법률적인 책임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피의 살륙전으로 미제침략군은 8.15해방후부터 조선전쟁전까지의 5년기간에 무려 100만명이상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사통보는 미제침략군이 전후에도 저들의 식민지지배체제유지를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총칼로 탄압말살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대미문의 대집단학살범죄

미제가 조선전쟁시기 공화국북반부지역뿐아니라 남녘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평화적주민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집단학살만행은 히틀러파쑈광들을 훨씬 릉가하였다고 하면서 조사통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전쟁발발당시 미국방성은 《당신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아래 《미국병사들은 무자비하고 능숙한 살인자가 되여야 한다.》, 《사민도 적군과 같이 대하여야 한다.》, 《흰옷을 입은 놈들은 모조리 폭격하여 죽여야 한다.》는 살인교리를 담은 소책자를 조선전쟁터로 떠나는 미제침략군부대들에 나누어주어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살륙전에 내몰았다.

1950년 7월 미제야수들이 충청북도 영동군 로근리에서 아무런 리유도 없이 400여명의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무차별적인 폭격과 기총사격 등으로 학살한 사건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미제야수들의 피비린 학살만행이 얼마나 몸서리치는것이였으면 남조선출판물들도 《귀신도 기가 막혀 통곡할 참극》이라고 개탄하였겠는가.

당시 학살만행에 직접 가담하였던 전 미제침략군 사병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련락병이 달려와 〈몽땅 쏴죽이라. 한사람도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전달했다. 피난민도 거기에 포함되는가고 묻자 그는 〈그렇다. 움직이는 모든것이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이것은 로근리에서 감행한 미제야수들의 대학살만행이 사전에 면밀히 준비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대량살륙범죄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집단학살만행은 단지 로근리에서만 감행된것이 아니다.

미제침략군은 남으로 패주하면서 서울에서 1만여명, 춘천에서 3만여명, 인천에서 5 000여명, 수원에서 1 100여명, 충주에서 2 000여명, 공주와 평택에서 각각 600여명, 대전에서 8 600여명, 부여와 청주에서 각각 2 000여명, 전주에서 4 000여명, 안성에서 500여명, 김해에서 750여명, 진영에서 335명, 군산과 안양에서 각각 400여명, 광주에서 3 000여명, 통영에서 800여명을 비롯하여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우리 인민군대의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시기에도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의 곳곳에서 짐승도 낯을 붉힐 잔악한 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50년 9월 인천에 상륙한 미제침략군은 첫날 하루동안에만도 무고한 주민 1 300여명을 사살하였으며 9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의 기간에는 무려 5만 5 900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공산분자》로 몰아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의 기간에 무려 14만 7 000여명의 무고한 인민들을 살해하였다.

사람잡이에 미친 미제침략군은 심지어 학살한 사람들의 머리가죽을 벗겨내여 《기념품》으로 나누어가지는 소름끼치는 야만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당시 프랑스의 한 신문도 《20세기의 최대의 만행은 미군이 조선에서 감행하였다.》고 강력히 폭로단죄하였다.

충청북도 단양에서 감행된 학살만행은 오늘도 미제의 야수성과 잔인성을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1951년 1월 20일 미제는 단양군 영춘면에 있는 곡계굴이라는 동굴을 마구 폭격하여 그곳에 피신해있던 400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대량학살하였다.

동굴속에 시체가 얼마나 많았던지 후날 시체를 처리하는데 나섰던 주민들은 《비가 많이 오면 곡계굴곁의 개울에 해골이 둥둥 떠내려갔다.》고 증언하였다.

미제침략군은 1951년에 들어와 남조선에서 유격투쟁이 강화되자 그를 《토벌》한다는 구실밑에 대규모적인 집단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

1951년 2월 거창량민학살사건의 일단에 대해 남조선의 《동아일보》(1960년 5월 15일부)는 이렇게 전하였다.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에서 부락민 600여명을 피난가자고 박산개천가에 끌고가서 한곳에 세워놓고 기관총과 소총등으로 무려 2시간동안이나 쏘아댔다.

몇번이고 몇번이고 죽은 시체에다 자꾸만 총을 쏘아댔고 젖먹이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 멎은 후에야 발사를 중지하고는 시체에다 기름을 뿌려 불태워버렸다.

이들은 민간인들을 죽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박산골짜기에 버려져있는 어린이들의 시체를 골라 머리를 따로 잘라 파묻어버렸는데 그후 부락민들이 해골을 파내여보니 뼈다귀만도 19가마니였다.》

전쟁 3년간에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만도 무려 124만여명의 평화적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미제가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세균전 및 화학전만행을 감행한것은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한 특대형범죄라고 하면서 조사통보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남조선인민들을 대량학살하기 위해 남조선의 곳곳에 세균탄을 마구 뿌렸을뿐아니라 전후에도 세균무기와 유독성화학무기까지 동원하여 전대미문의 집단학살만행을 감행하였다고 지적하였다.

1960년대말 미제침략군은 《식물통제계획 1968》이라는 비밀작전계획을 세우고 남조선군을 내몰아 군사분계선 155mile전역에 걸쳐 8만L에 달하는 고엽제를 대량살포하여 비무장지대를 독해물로 오염시키였다.

1968년 5월부터 1970년대초까지 진행된 고엽제살포시 남조선강점 미8군 화학부대놈들은 직승기를 타고 지휘감독하면서 2만 6 000여명의 남조선군 사병들을 내몰아 맨손으로 고엽제를 철갑모에 담아 뿌리게 하였다.

그 결과 고엽제살포에 내몰렸던 남조선군 사병들중 수천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3만여명이 불치의 병에 걸렸으며 그 피해자수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히 미제침략군이 살상력이 95%에 달하는 위험천만한 살인무기인 탄저균을 남조선에 몰래 끌어들여 남조선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까지 암암리에 감행한것은 우리 민족뿐아니라 전 인류에게 또다시 헤아릴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들씌우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하기에 남조선신문 《한겨레》는 지난 7월 25일부 사설에서 《미군의 탄저균밀반입과 실험은 생물무기금지조약에 위반되며 나아가 전쟁범죄에 해당된다.》고 준렬히 단죄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살륙을 도락으로 삼는 미제승냥이들의 살인마적정체와 잔인성, 야만성을 만천하에 고발해주고있다.

인간의 탈을 쓴 야수들의 반인륜적범죄

인류력사는 강점군의 만행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다.

그러나 력사의 어느 갈피에도 미제침략군처럼 강점지역을 제멋대로 싸다니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인, 강간, 폭행을 일삼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무참히 유린한 악마의 범죄집단을 찾을수 없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인민들을 사냥의 대상으로, 움직이는 과녁으로 여기고 닥치는대로 쏴죽인 살인무리들이다.

1957년 7월 3살 난 어린이를 《휘발유도적》이라고 총으로 쏴죽인 인천송유관어린이사살사건, 그해 9월 나물캐는 소녀를 《꿩》이라고 쏘아죽인 군산소녀총격사건, 1962년 1월 땔나무를 줏는 농민을 《노루》라고 하면서 쏘아죽인 파주나무군사살사건, 1963년 11월 나무하러 마을뒤산으로 올라간 주민들을 과녁삼아 포탄을 발사하여 즉사시킨 련천주민포격사건 등 남조선을 하나의 《인간사냥터》, 《자유사격장》, 《살인숙련장》으로 전변시킨 미제침략군의 살인만행들을 꼽자면 끝이 없다.

오죽하였으면 남조선인민들이 미군은 마치도 아프리카에 사냥이나 온것처럼 생각하였다, 산야에서 일하는 농민과 길가는 주민을 마치 아프리카에서 짐승을 사냥하는것처럼 총으로 쏘아죽이군 하였다, 이 남에 진주한 미군은 조선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치솟는 격분을 표시하였겠는가.

미제침략군은 남조선녀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그들의 정조와 육체적생명마저도 서슴없이 짓밟은 짐승도 낯을 붉힐 패륜패덕의 무리이다.

1949년 8월 12일부 제네바협약에 대한 보충의정서 제76조에는 《녀성들도 특별한 존중을 받으며 특히 강간, 매음의 강요와 그들의 정조를 침해하는것과 같은 모든 형태의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기되여있다.

그러나 인간도살을 쾌락으로 여기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게 있어서 녀성들의 인권을 규제한 국제법같은것은 안중에도 없었다.

1959년 12월 아무런 죄도 없는 두 녀성을 강제로 병영에 끌고가 가죽채찍으로 마구 때린 다음 그들의 옷을 벗기고 온몸에 뺑끼칠을 하여 거리에 내쫓은 의정부녀인뺑끼칠사건, 1960년 1월 병영에 강제로 끌어들인 두 녀성의 머리를 몽땅 깎아버리고 그들에게 달려들어 온갖 희롱을 다하다가 거리에 내쫓은 동두천녀인삭발사건 등은 미제침략군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하고 너절한 인간쓰레기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특히 1992년 10월 동두천기지촌의 녀종업원을 릉욕한 뒤 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실신케 하고 피흘리며 죽어가는 녀성의 자궁에 병을 틀어박고 홍문에 우산대를 꽂아넣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지른 윤금이살해사건, 2002년 길가던 나어린 녀중학생들을 장갑차의 무한궤도로 깔아뭉개여 처참하게 학살한 신효순, 심미선학살사건은 패륜패덕과 인간증오사상으로 길들여진 양키들의 범죄적만행을 만천하에 낱낱이 까밝혀주는 뚜렷한 증거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사병이였던 윌리암 께크는 이렇게 실토하였다.

《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맞다드는 남조선사람들을 모두 두들겨패고 보이는것은 모조리 빼앗는것을 당연시하였고 녀자를 보면 닥치는대로 강간하였다.

열세살 난 소녀도, 애를 안고 사정하는 부인도 미군에 강간당하고 버려졌으며 이에 항거하는 사람은 그가 젊은이이건 늙은이이건 가차없이 쏴죽이고 때려죽였다.》

뿐만아니라 미제침략군은 100만명에 달하는 남조선녀성들을 저들의 성노리개로 만드는 천추에 용납 못할 가장 극악한 반인권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로씨야인터네트통신 《이노스미. 루》는 1945년부터 1953년사이에만도 35만명의 남조선녀성들이, 1962년에는 2만명이상의 녀성들이 미군의 성노예로 되였으며 1945년부터 지금까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 끌려간 남조선성노예의 수가 100만명에 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녀성들을 야수적으로 릉욕하고 성노리개로 만든 행위 등으로 입힌 피해는 일본군성노예범죄에 대한 배상기준에 준하여 그 액수를 계산하면 2000년대 초까지만도 무려 1 000여억US$나 된다.

오죽하면 남조선과 해외에서 미제침략군은 《살인군단》, 《강간군단》, 《성폭행군단》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겠는가.

조사통보는 미제침략군이 군사기지화책동과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남조선의 생태환경을 마구 파괴하고 인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참히 유린한 반인권범죄자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제침략군에 의한 천인공노할 범죄만행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있지만 범죄자들은 현대판 노예문서인 미국남조선 《행정협정》의 보호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거리낌없이 흉악범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행정협정》이 발효된 1967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미군범죄건수는 5만 4 000여건, 범죄에 가담한 미군수는 6만 1 000여명이였지만 남조선사법당국의 재판비률은 1%대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만도 미군범죄는 2 600여건으로서 매해 평균 300건이상에 달하였지만 재판에 넘겨진것은 거의 없었으며 형벌을 주어도 말로 그쳤을뿐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 죽은자만 있고 죽인자는 없으며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것이 현실이라고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실로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감행한 반인륜적, 반인권적범죄를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외세가 주인행세를 하고 자주권이 짓밟힌 곳에 인민들의 피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친미사대매국노들이 살판치는 한 남조선인민들은 언제가도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다는것이 미제침략군 강점사가 남긴 피의 교훈이다.

조사통보는 남조선인민들이 장장 70년간 우리 조국의 절반땅을 타고앉아 온갖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워온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동승기

새로 꾸려진 신의주-동림관광지구를 찾아서

산좋고 물맑고 경치가 아름다와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으로 불리우는 공화국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승지들이 많다. 관서8경의 하나로 불리우는 동림폭포지구에 새로 꾸려진 관광지가 그중의 하나이다.

얼마전 우리는 국경도시 신의주시에 위치한 평안북도관광관리국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도관광관리국에 들어서니 관광뻐스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이곳에서 우리는 리정화 도관광관리국 봉사과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나라의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며 각 도들에서 자체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라 이곳 관광관리국에서 동림폭포지구에 관광지와 현대적인 종합봉사기지를 잘 꾸려놓고 지난해 10월부터 신의주-동림관광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박 2일일정으로 진행하는 신의주-동림관광은 시작한지 1년도 안되지만 국내사람들과 외국인관광객들로 붐비고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호텔방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이름난 신의주-동림관광지구를 찾아 관광객들과 함께 뻐스에 올랐다.

즐거운 뻐스려행

신의주를 출발하여 동림에로 가는 관광뻐스안은 사람들로 가득 찾었다. 관광길에 오른 사람들은 저마다 들뜬 기색이였다.

뻐스가 출발하자 《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안내원의 말이 울려나왔다. 이어 안내원은 관광객들에게 관광일정과 참관지들을 소개해주고 외국인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조선말을 배워주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등 초보적인 인사말부터 시작된 조선말배우기는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개중에는 조선말을 류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음이 잘 되지 않아 곱씹는 사람들도 있었다. 관광뻐스가 신의주역전광장에 도착하자 절세위인들의 동상이 눈앞에 어려왔다.

《신의주시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신것은 절세위인들을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 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경모와 흠모의 분출입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절세위인들의 동상을 찾아 삼가 인사를 드리군 합니다.》

령도자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공화국인민들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외국인관광객들은 감탄을 표시하였다.

관광객들을 태운 뻐스가 남신의주에 들어서자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차창밖에 어려왔다.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려진 주택들의 창문마다에 갖가지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여있었다. 우리 인민들이 돈한푼 내지 않고 새 집을 받고 무상치료, 무료교육의 혜택을 누리고있다는 안내원의 이야기에 외국인관광객들은 조선인민들이 정말 부럽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여러차례 조선을 방문하였다는 어느 한 외국인관광객은 《조선은 생활상압박이 없는 나라이다.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는 일반사람들은 일생 벌어도 제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세방살이 하고있다. 결혼을 하고싶어도 돈이 없어 하지 못하고있다. 빈부귀천이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살고있는 조선인민이 부럽다. 조선에서 살고싶은 생각이 절로 난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관광뻐스가 나라의 곡창지대의 하나인 룡천군과 염주군을 지나 동림군에 위치한 동림호텔가까이에 들어서니 산중턱을 따라 길게 늘어선 옛성터가 바라보였다. 《저 옛성터가 바로 유명한 고려시기의 통주성입니다.》라는 안내원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관광객들은 저마다 사진기를 꺼내들었다.

신의주시에서 동림군까지 뻐스로 근 2시간, 하지만 관광객들은 지루한줄을 모르고 웃음과 즐거움속에 언제 도착했는지 몰랐다. 시간가는줄 모르는 즐거운 려행이였다.

웃음절로, 기쁨절로

동림호텔표식비를 따라 도로에 들어서니 제일먼저 안겨온것은 울울창창한 수림이였다. 밤나무, 소나무, 잣나무들로 이루어진 푸른 숲이 관광객들을 손저어 부르듯 솨- 솨- 설레이고있었다. 동림호텔구내에 들어선 관광객들은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청기와를 인 조선식합각지붕과 대리석으로 특색있게 벽장식을 한 호텔이 주변환경과 한껏 어울리는데다가 구슬같이 맑은 물이 뿜어져나오는 분수가에 생긴 령롱한 칠색무지개가 이채로움을 더해주었다.

겉볼안이라고 황홀한 무리등이며 대형벽화, 거울처럼 알른거리는 바닥 등 훌륭하게 꾸려진 호텔의 홀은 관람자들을 매혹시켰다. 4층으로 꾸려진 동림호텔에는 60여개의 손님방들과 상점, 당구장, 탁구장, 전자오락실, 식당 등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었다.

호텔방들에 려장을 푼 관광객들은 저마끔 자기들의 기호와 취미에 맞게 여러 봉사시설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군 한다. 탁구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승벽내기로 탁구를 치고있었다. 다른 쪽에서는 장기를 두는 사람들, 전자오락을 하거나 당구를 치는 사람들로 호텔안은 어딜 가나 흥성거렸다.

관광객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는 실내물놀이장에서도 울려나왔다.

관리원은 실내물놀이장을 찾는것은 관광객들의 어길수 없는 일과라고 말하였다. 수조에서 초음파안마를 받는 사람, 덕수를 맞는 사람, 씨엉씨엉 헤염을 치는 사람들로 떠들썩하였다. 신의주시에서 온 김경옥(35살)녀성은 이런 훌륭한 곳에서 관광을 하니 마음이 상쾌하다고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동림호텔에서 탁구도 치고 수영도 하니 쌓였던 피로가 순간에 풀리는것만 같다.》고 말하였다.

시간이 흘러 저녁식사시간이 되자 식당의 식탁마다에 관광객들을 위한 갖가지 맛있는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호텔식당에서는 조선의 이름난 민족음식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료리들을 맛볼수 있다. 식사가 시작되여 시간이 얼마간 지나자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공연이 진행되였다. 노래 《반갑습니다》로 시작된 공연은 시간이 갈수록 고조를 이루었다. 노래 《내 마음》, 《전선행렬차》, 《녕변의 비단처녀》, 《가리라 백두산으로》 등 종목들이 바뀔 때마다 관광객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재청을 요구하였다.

특히 흥취나는 《토장의 노래》가 울리자 관광객들은 무대에 올라 덩실덩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흥취를 돋구었다.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로 되였다. 공연은 끝났으나 관광객들은 자리를 뜰념을 안했다. 동림호텔에서 맞고보낸 관광생활의 즐거운 하루가 매우 짧았던것이다.

하기에 뉴질랜드의 관광객이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기였다. 《훌륭한 환경과 상쾌한 공기, 현대적설비들이 구비된 아주 훌륭한 호텔이다. 조선에 와서 관광을 하는 기간 인상깊은 호텔들중의 하나이다. 봉사원들도 하나같이 친절하고 살뜰하였다. 뉴질랜드 글린 도흐티》

시원한 폭포수에 몸을 담그며

다음날 아침 관광객들은 동림폭포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다. 얼마 안있어 눈앞에는 구슬같은 물이 쏟아지는 동림폭포가 바라보였다. 동림폭포는 천태만상의 기암괴석들과 우거진 숲과 한데 어울려 뛰여난 경치를 자랑하고있었다.

동림폭포는 락기산과 문수산의 깊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룡바위아래에 있는 늪에 고여있다가 화강암벼랑을 타고 흰 물안개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아름다운 폭포이다.

하기에 우리 선조들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치와 폭포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로 하여 옥포라고 불리우는 동림폭포를 평양의 련광정, 강계의 인풍루, 만포의 세검정, 녕변의 약산동대, 안주의 백상루, 의주의 통군정, 성천의 강선루와 함께 관서8경으로 불러왔다.

동림폭포가 얼마나 유명한가는 일본사람이 이끼오른 바위에 쓴 글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동림폭포주변의 바위에 《청량 을해맹하 안동현 원전박애》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그것을 우리 말로 풀이하면 《을해년의 무더운 여름날에 안동현(단동)에 살고있던 하라다 하꾸라는 일본인이 이곳을 지나다가 폭포에서 묵으며 공기좋고 물이 좋아 잊지 못해 글을 쓴다.》는것이다.

동림폭포는 경치도 좋지만 폭포아래에서의 덕수맞이도 유명하다. 먼 옛날 곱사등이가 이곳에서 덕수를 맞고 허리를 쭉 폈다는 이야기는 관광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전설에 극한된것이 아니다.

실지로 이곳에 와서 덕수를 맞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신의주시에서 사는 한 남성은 말도 못하고 잘 걷지도 못하다가 이곳에서 덕수를 맞고 한달만에 완쾌되여 돌아갔다고 한다. 어느 한 녀성은 어깨를 쓰지 못하다가 이곳에서 덕수를 맞고 한주일만에 병이 씻은듯이 나았다고 한다.

이렇듯 경치좋고 물이 맑고 병치료에도 특효있는 동림폭포가 오늘날 절세위인들의 사랑과 은정속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즐겨 찾는 문화휴식터로,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명승지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동림폭포에 뛰여들어 쏟아지는 폭포수를 맞는 사람들, 인삼뿌리를 씻어내린 물이라며 폭포수를 떠마시는 사람들, 맑은 물을 헤가르며 헤염치는 사람들, 물속에서 공을 치며 노는 사람들,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 동림폭포지구는 웃음넘친 관광객들로 끓어번졌다. 하루해가 저물어도 떠날줄 모르는 관광객들, 돌부처가 되서라도 그냥 머물러있고만싶은 그들이였다.

1박 2일, 비록 기일은 짧아도 신의주-동림관광은 국내외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감명을 남겼다.

본사기자 김철호

동림호텔

동림폭포

통주성

부당한 총련탄압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일본당국의 범죄적인 총련탄압소동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지난 6일 일본당국은 수많은 경찰들을 내몰아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에 대한 강제수색을 감행한데 이어 총련혹가이도본부, 본부회관에 있는 모든 총련기관들과 동포들의 자택들을 강제로 수색하였다.

일본당국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동포가 혹가이도조선초중고급학교 교원과 교직동분회장을 비롯한 3명의 일군들을 실지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명의로 고용보조금을 수급받은것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사기죄》라고 하면서 이러한 파쑈적탄압만행을 감행한것이다.

한편 일본당국은 《사기죄》혐의와 관련하여 고용보조금의 급부신청서를 도왔다는것을 구실로 이전 혹가이도상공회 경리실 부실장을 부당하게 체포하였다. 그 무슨 외환법위반이라는 당치않은 혐의를 내들고 일본당국이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 사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을 불의에 체포한 파쑈적인 란동을 부린것이 바로 몇달전의 일이다.

이번에 일본당국이 모략적인 《사기죄》를 꾸며내고 그 터무니없는 억지궤변을 구실로 많은 경찰들을 내몰아 총련혹가이도본부회관과 학교, 동포들의 자택에 대한 날강도적인 강제수색을 벌린것은 총련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탄압의 구실을 찾으려는 속심의 발로로서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지금 공화국은 일본과 비정상적인 관계이지만 일본인들이 공화국에 와 조상들에 대한 성묘를 하도록 고상한 인도주의적조치를 취하고있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이에 반하여 공화국을 의연 적대시하면서 총련에 대한 탄압에 더욱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날로 가중되는 일본당국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지금 공화국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재일조선인들이 일제식민지시기 야만적인 《징용》, 《징병》에 의해 현해탄을 넘어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이고 그 후손들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당국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착취, 인간이하의 멸시와 구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재일조선인들과 그 후손들을 보호할 법적, 인도적책임을 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이 패망이후 70년이 되는 오늘까지도 조선인민에게 끼친 불행과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열을 올리는것은 일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피맺힌 원쑤, 백년숙적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일제시기의 조선민족말살정책이 한세기가 지난 오늘까지 일본땅에서 뻐젓이 감행되고있는것은 인류의 비극이고 수치이다.

공화국은 최근에 일본당국이 부당한 구실을 내들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련이어 감행하고있는 강제수색과 체포행위를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일본당국이 진실로 조일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만약 일본당국이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인 총련에 대한 탄압책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제2의 〈세월〉호참사가 또 발생했다》

지난 5일 저녁 7시 40분경 남조선 제주해협의 추자도린근에서 전라남도 해남군이 관할하는 낚시배 《돌고래》호가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돌고래》호는 추자도에 낚시질을 나갔다가 귀항하던중 초속 11m의 강한 바람과 시간당 54㎜의 폭우, 3m높이의 파도에 맞다들려 떠밀리다가 주변양식장바줄에 발동기관이 걸리여 뒤집혔다고 한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새정치민주련합은 《추자도 〈돌고래〉호전복사고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진상규명과 사건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련합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참사이후 안전대책이 헛것이 됐다. 작은 〈세월〉호참사라 할만 한 사고》라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분의 명복을 빌고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한다.》, 《우리 당도 진상조사와 안전대책수립에 나설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의 원내대표도 《〈세월〉호참사이후에도 해상안전관리체계는 전혀 개선된것이 없다.》며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국민은 과연 안전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제2의 〈세월〉호참사가 또 발생했다. 박〈대통령〉이 (〈세월〉호참사이후) 〈국가〉대개조를 말하면서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건사고는 끊기지 않고있고 국민은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한편 사건의 피해자유가족들은 대책위원회를 뭇고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해나섰다.

최영태 《돌고래》호유가족대책위원장은 8일 전라남도 진도군에 있는 체육관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고지점이 신호가 끊긴 곳에서 불과 500m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해경이 제대로 된 수색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컸다.》며 《해경의 초기대응이 제대로 됐나를 확인하고자 한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사망자, 실종자가족들은 《지난 5일 오후 7시 37분에 사고신고가 접수되고 3시간이 채 안된 오후 10시 25분에 해경함정 28척이 도착해 수색활동을 했다고 했지만 실상 정상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해경함선 28척이 출동했다고 발표했지만 고작 2~3척이 수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첫날부터 해경에 함선의 이동경로가 기록된 항로항해일지를 보여달라고 줄곧 요구했지만 공개를 거부하고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란 증거》라고 강조했다. 《돌고래》호유가족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책을 더이상 믿을수 없어 서울에 집단상경하여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본사기자

수명을 늘이는 6가지습관

1. 즐거운 기분을 유지한다.

연구한데 의하면 락천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들에 비해 사망률이 14% 낮다고 한다.

2. 근심거리를 글로 적어야 한다.

매일 근심거리를 종이에 써버릇하면 고민을 털어버리는데 도움을 준다.

3. 낮잠을 자야 한다.

수면부족상태가 지속되면 세포의 로화를 촉진하게 된다.

4. 심신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긴장을 푸는 방법에는 운동, 각이한 호흡방식 등 여러가지가 있다.

5. 명상에 잠겨야 한다.

자주 명상에 잠기는 사람은 대뇌에서 주의력과 인식력을 통제하는 전두엽이 일반사람보다 두텁다.

6. 학습을 하고 머리를 계속 써야 한다.

학습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사색하는것은 로화를 지연시키는 과정으로 된다.

본사기자

평양의 무술 — 날파람

날파람이란 바람같이 날래게 몸을 놀려 상대방을 치기도 하고 방어도 한다는 뜻을 담고있다. 날파람은 세나라시기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널리 보급되였던 수박과 그것을 발전시킨 택견의 좋은 점들을 참고하여 평양일대에서 창조되였다.

날파람은 그 타격술이 매우 다양하며 우리 나라 력대 그 어느 무술보다 위력하다. 손과 발, 머리를 비롯한 온몸이 그대로 공격과 방어수단으로 되는 날파람은 우리 민족의 전통무술인 수박과 택견의 수법외에 머리받기, 어깨받기, 몸동작 등을 보충하여 발전시킨것이다. 그러므로 날파람은 온몸을 모두 쓰는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무술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다.

근대시기 평양에서 진행된 날파람경기는 남문앞, 남문밖, 관문앞 등에서 일정한 지역으로 나누어 하였다. 날파람을 경기로 진행할 때에는 어떠한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것이 원칙이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사람들의 맹호출림의 성격을 그대로 무술에 적용한 날파람은 그 위력이 강할뿐아니라 다양한 타격술을 가지고있는 맨손무술련마체육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세 고집쟁이

옛날 한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에게나 지기 싫어하는 승벽이 센 사람들이였다. 그래서 누구도 이 두사람과 애초에 마주서려고 하지 않았다. 어느날 이 고집쟁이네 집에 손님이 와서 저녁을 대접하게 되였다.

《애야, 빨리 고기를 사오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주며 말하였다. 얼마후 아들은 고기를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우에서 한 사나이를 만나게 되였다. 두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서로 상대방을 쏘아보며 좀처럼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쪼꼬만 애가 어른에게 길을 먼저 양보해야지.》

다리우에서 사나이가 하는 말이였다. 그러자 아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이 다리우에 먼저 들어선건 나예요. 그러니 당신이 양보하는게 응당하죠.》

그들은 이렇게 싱갱이질을 하며 오래동안 마주서있었다. 한편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밖으로 나온 아버지는 다리 한가운데 마주서서 움직일줄 모르는 아들과 사나이를 보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애야, 너는 고기를 가지고 먼저 가거라. 내가 대신 서있겠다.》

하여 아들은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가고 대신 아버지가 사나이와 마주서있게 되였다. 언제까지 마주서있겠는지…

사화

홍 산 이 야 기 (1)

글 강덕부, 그림 김윤일

우리 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태여나 자라난 고장인 강동땅에는 단군과 관련된 지명도 많고 사화도 많으며 전설도 많다. 아달산, 대박산, 홍산, 마고성, 룡다리, 단군굴… 하여간 강동의 어느 성, 어느 바위, 어느 골짜기 할것없이 모두가 다 단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가지고있다. 단군이 태여나 자라면서 대장부의 큰뜻을 품고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기 위한 웅지를 실현하기 위해 심신을 불태운 고장이 그쯤도 못할리가 없는것이다.

때는 바야흐로 5천여년전 환웅이 협소한 강동분지에만 만족할수 없어 동서남북으로 군마를 달릴 꿈을 아들 단군에게 실어보던 시기로서 단군에 의하여 조선이라는 고대동방의 대국이 일어서기 전야인 단군이 금방 열세살에 잡히던 때였다.

열세살 난 단군은 여느 날처럼 말을 달리며 무술훈련에 열중하고있었다. 말은 단군의 한몸이기라도 한듯 그의 뜻대로 빨리 또는 천천히 달리며 앞에 나타나는 도랑이며 나무울타리 등을 새처럼 날아넘었고 그우에서 단군이 날리는 화살이나 창은 사방에 세워진 과녁의 중심에 어김없이 들어가맞아 시중하는 군사들의 환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만하면 무술수준이 대단하다고 할수 있었다. 단군에게는 활쏘기건, 창쓰기건, 기마술이건, 그 어느것 하나 막히는것이 없었고 그의 몸은 펄펄 뛰는 힘으로 막 용솟음치고있었다. 과연 누구나 다 박달족의 군사를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당당한 장수감이라고 입을 모아 말할만도 하게 되였다.

그러나 집앞에 닦아놓은 무술훈련장에서나 뛰여다니며 땀깨나 흘리는 단군의 그 모습은 환웅의 생각을 달리하게 하였다.

(몇해후면 나를 대신하여 이 박달족을 이끌면서 동서남북으로 령역을 넓혀 주변의 크고작은 씨족들을 하나로 묶어세워야 할 몸이 이렇듯 자그마한 놀이장 같은데서나 뛰여다녀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데서나 놀아가지구서는 그런 큰뜻을 키울수도 없고 또 그 큰뜻을 실현시킬 용맹도 가질수가 없다. 넓으나넓은 자연속에서 자연을 벗하고 자연을 적수로 삼아 웅지를 키우고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환웅은 자기의 파란많은 한생을 다시한번 돌이켜보았다.

족장이였던 그의 아버지 역시 어린시절부터 그를 박달족을 승전에로 이끌 무적의 장수로 키우기 위해 죽음이 입을 벌리고있는 아슬한 벼랑도 날아넘게 했고 뭇짐승들도 허우적대며 떠내려가는 사품치는 강물을 헤여넘게 하기도 하였다.

이런 때마다 환웅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없지도 않았으나 후날에는 아버지의 처사가 백번, 천번 옳았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였다. 강한자만이 모든데서 이길수 있는 법이다. 혼자서 열, 백, 천을 당할수 있는 무술과 힘을 가져야 박달족을 이끌수 있고 적수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길수 있는것이며 그속에서 자기를 더 강대하게 만들수 있는것이다.

환웅은 산중의 왕이라던 호랑이가 곰의 발통에 채워 눈알이 튀여나오는것도 보았고 메돼지의 이발에 물어뜯기워 치명상을 입는것도 보았었다. 힘이란 항상 이렇듯 죽고 삶을 판가리하는 가장 어려운 악조건에서 키우고 숙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로 된다는것이 바로 환웅이 찾은 결론이였던것이다.

(그렇다. 호랑이도 조금만 힘을 늦추면 곰의 발통에 채일수 있고 한갖 메돼지의 이발에 물어뜯기워 치명상을 입을수 있다. 호랑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사나운 호랑이로, 몽둥이면 세상에서 제일 굳은 박달나무몽둥이로 되여야 한다!)

단군의 훈련모습을 지켜보던 환웅은 몸을 움쭉 일으키며 소리쳤다.

《이리 오너라! 놀음은 그만하고!…》

땀으로 흠뻑 젖은 단군이 그의 앞에 와서 의혹과 불만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저는 무술훈련을 했소이다. 그런데 놀음을 그만하라는건 무슨 말씀이오이까?》

《무술이란 싸움을 위한것이다. 그런데 저렇게 만들어놓은 도랑이나 뛰여넘고 서있는 과녁이나 쏘아서야 그게 무슨 무술이란 말이냐?》

《예?! 그럼…》

단군은 전에없이 엄엄한 아버지의 얼굴을 놀라서 쳐다보았다. 그러나말거나 환웅은 휙 돌아서며 나직한 어조로 한마디 하였다.

《잔말말고 길떠날 차비 해라!》

《예?… 예!》

단군이 영문도 모르고 어데로인지도 모르는 길떠날 차비를 하고있을 때 환웅은 자기의 군사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있었다. 그의 눈길은 차돌이라고 부르는 군사에게서 멎었다. 힘이 장사인데다 날렵하고 무술에서는 으뜸가는 군사였다. 또한 수십의 군사들을 이끌고 여러차례의 싸움에서 승리한 전적도 가지고있는 차돌이였다.

환웅은 손으로 그를 찌르듯이 가리켰다.

《너도 길떠날 차비를 해라!》

차돌이는 단군처럼 자그마한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 어떤 령에든 무조건 복종하는데 습관된 군사였기때문이였다.

차돌이가 물러갔을 때 아들을 어데론가 떠나보낸다는 말을 들은 단군의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왔다.

《애를 어데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녀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비껴있었다. 아직은 화합을 거부하는 씨족들의 칼이나 창이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그런 때였던것이다. 그리고 설사 싸움으로 복종시킨 씨족이라 해도 그 잔여세력들이 어데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있지 않다고 믿기도 어려웠던것이다. 다 자란 아들이였으나 집앞에서 하는 무술훈련도 대견함과 함께 불안을 안고 지켜보던 어머니로서는 어데로 보낸다는데는 마음을 쓰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환웅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일이 이쯤되면 그에게서 그 무엇도 들을수 없다는것을 녀인은 잘 알고있었기에 넌지시 에둘러서 다시 입을 열었다.

《며칠이나 걸릴것 같나이까?》

환웅은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의 불안한 마음을 들여다본듯 짤막하게 대답했다.

《나도 모르겠소.》

《예?!》

《그건 저애에게 달렸소. 몇달이 걸릴수도 있고 몇년이 걸릴수도 있소. 어쩌면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고…》

《예?!》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522 편집위원회